즉시 배포용: 2016년 3월 8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240만 달러 발표

*취업제일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100**개의 장애인 취업 알선 기관이 보조금을 수령*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장애인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개 기관에 뉴욕주 취업 서비스 제도를 통해 240만 달러가 교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장애인을 위한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주지사의 취업제일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이 보조금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뉴욕주의 포용성 전통을 지속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는 우리 노력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행정명령 제136호를 통해 제정된 Cuomo 지사의 취업제일 이니셔티브는 장애인 뉴욕주민들의 취업율을 늘려, 장애인 뉴욕주민들의 빈곤율을 낮추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정식 방침을 확립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지역사회 기관 및 옹호 단체를 위한 정책 및 관행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취업제일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 기관들의 지역별 명세는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주 정신건강실 실장인 Ann Marie T. Sulliva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장애인 취업의 길을 계속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이 의미 있는 일을 찾도록 돕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독립심과 자부심을 양성합니다. 협력하여 각 전진 단계를 위한 뒷받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진실로 뉴욕주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연방 노동부 장애인취업프로그램실로부터 주지사의 취업제일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는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 취업 서비스 제공에서 최대 10,000명의 서비스 제공자 훈련을 가능하게 할 훈련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취업제일 이니셔티브의 필수 부분인 NYESS는 장애인을 위한 미국 최대의 취업 네트워크입니다. 현재까지 사회보장청으로부터 240만 달러를 100개 뉴욕주 기관이 받아 취업 서비스로 7,755명의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1,366명이 영구 일자리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NYESS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능력과 상관 없이 종합 취업 관련 서비스와 현재 뉴욕주 고용주들이 게시한 약 120,000개 일자리와의 직무 매칭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NYESS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016-2017 회계연도에 연방 노동부 장애인취업프로그램실로부터 훈련 지원을 받는 19개 주 중 하나로서 뉴욕주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장애인 취업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400시간의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이 훈련은 Cuomo 지사의 취업제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변모에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기관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들 사이의 취업율 증대와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한 특정 서비스의 실행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소중한 훈련의 도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주정부는 “강사 교육” 방식을 추구하고 뉴욕주 Inclusive Workforce Alliance와 연계된 장애인 취업 협회의 리더들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Inclusive Workforce Alliance의 20개 회원 기관 각각이 취업제일 모델을 뒷받침하는 증거 기반 관행 제공에서 그들 회원 중 100명을 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곤란이 취업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뉴욕주 장애인 커뮤니티를 섬기는 기관들에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시는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본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과 상관 없이 모든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향유하기 위한 같은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Gregory W. Meeks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뉴욕 시와 주 전역의 장애인을 위한 취업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Andrew Cuomo 지사 행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주지사의 취업제일 이니셔티브 같은 프로그램들은 장애인과 그들을 돌보는 커뮤니티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든 자원과 기회를 가질 가능성을 증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를 완전 고용으로 회복하고 모든 능력의 근로자들을 위해 지탱 가능한 경로를 창조하는 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자리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꾸준한 소득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독립심도 제공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취업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청, 노동부와 뉴욕주 사이의 성공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하여 궁극적으로 수 천명의 장애인 뉴욕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수 천명을 훈련하여 개인들이 직장에 완전 통합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원의원 Yvette D. Clark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애인 보호 및 니즈 우선 뒷받침은 정부의 모든 레벨에서 최우선 순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중요한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제일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취업 서비스 제도의 활용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사회보장청의 보조금 200여 만 달러로 우리 주 전역에서 더 높은 실업 및 빈곤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경기장을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모든 뉴욕주민들이 이 긴요한 자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uomo 행정부 및 관련 뉴욕주 기관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Paul Tonk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이 직장에서 독특한 도전을 극복하도록 도울 때 지역사회, 경제 및 우리 자신들을 고양시킵니다. 일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찾을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Cuomo 지사와 본인은 그러한 기회 제공이라는 지속적인 목표를 공유합니다. 본인은 우리 주 장애인들을 위해 영구 일자리를 찾기 위한 NYESS 팀의 치열하고 결연한 노력에 감사하며, 각각의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일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원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취업의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철폐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뉴욕주민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Cuomo 지사의 취업제일 이니셔티브는 이미 수 천명의 장애인 뉴욕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왔는데, 연방 정부의 이 추가 투자로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뉴욕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스스로 빈곤을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Kathleen Rice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뉴욕주민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달성하고 존엄과 독립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연방 보조금은 취업 알선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사람들의 훈련을 개선함으로써 수 천명의 장애인 뉴욕주민들이 좋은 영구적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돕는 주 전역의 수 백개 기관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장애인 뉴욕주민들이 보람 있고 지탱 가능한 일자리를 찾도록 전력을 다해 돕는 높은 자격의 전문 인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뉴욕 정신과재활협회 회장 Harvey Rosentha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애인 뉴욕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더 큰 경제적 자조 약속을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주지사와 행정부에 매우 감사합니다. 취업은 빈곤을 벗어나 안녕과 완전한 커뮤니티 포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로입니다.”

뉴욕주 재활협회의 회장 겸 CEO인 Michael Seerei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포용되기 위한 기회를 찾도록 돕는 것이라면 유연한 보조금과 기술 지원은 정부가 혁신과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자원이 취업 지원 기관들의 노력과 부합되도록 하여 크게 칭찬 받아야 합니다. 융통성이 항상 허용된 이러한 자원은 뉴욕주를 장애인 취업 지원 및

포용성에서 다른 주들의 리더로 계속 만들 것입니다."

뉴욕주의 취업제일 이니셔티브는 다음 뉴욕주 기관들이 뒷받침합니다: 정신건강실, 보건부, 알코올약물남용실, 발달장애인실, 노동부, 재향군인과, 아동가족서비스실, 교통부, Empire State Development, 교육부, 맹인위원회, 시민서비스부 및 법무부 특별 니즈인 보호 센터.

NYESS는 연방 사회보장청의 Ticket-to-Work 프로그램에 등록된 취업 알선 네트워크로서 장애인을 위한 경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NYESS는 Ticket-to-Work 서비스를 지역 레벨에서 조율합니다. NYESS는 정신건강실과 노동부가 맹인위원회, 주 교육부 ACCES-VR, 알코올약물남용실, 발달장애인실 및 노령실과 협력하여 관리합니다.

연방 노동부의 장애인취업프로그램실의 취업제일 노력에 대한 상세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